



## 정보

### ◎ 2005년도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및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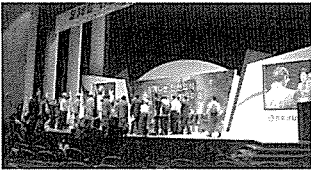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일정	지부	장소
건강진단과 산업재해보상사례	10. 13(목) ~ 10. 14(금)	경기	경원전문대학교 미래관 2층
	10. 27(목) ~ 10. 28(금)	대구경북	장소 미정
	11. 3(목) ~ 11. 4(금)	중앙회	KNA 연수원
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프로그램	10. 19(수) ~ 10. 21(금)	중앙회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 2층 1강의실
산업보건관리	11. 10(목) ~ 11. 11(금)	중앙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세미나실

## 중앙회 소식

### ◎ 『지부활성화를 위한 지부장 간담회』 실시

본 협회는 2005년 6월 29일(수)(18:00~19:00) 전주한정식에서 임원들과 각 지부임원과 함께 2005년도 상반기 지부별 사업보고 및 지부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김영임회장 제38회 산업보건대회 참석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가 2005년 7월 1일(금) 10:00 COEX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으며, 김대환 노동부장관,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각 기관의 장들과 함께 본 협회 김영임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 산재예방 유공자 수상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를 맞이하여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인 노동부장관상은 본 협회 인천지부장 백금주 선창산업(주) 보건관리자가 COEX 오디토리움에서 수상하였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협회 방문』

2005년 7월 7일(목)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이사장과 강성규 보건안전지원국장은 본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영임 회장, 김순례 제1부회장, 송영숙 제2부회장, 김영희사무국장과의 상호협력 증진 방안 및 산업보건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각 지부 보수교육에 김순례 제1부회장, 김영희 사무국장, 이상희 교육부장 참석

7월 7일~7월 8일 해천대학 해천타워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충청지부 보수교육, 7월 12~13일 동아대학교의료원 대강당 5층에서 열린 부산경남지부 보수교육에는 김영희 사무국장과 이상희교육부장이 9월 1일~9월 2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전남북제주지부 보수교육에는 김순례 제1부회장과 김영희 사무국장이 참석, 9월 7일~9월 8일 인하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인천지부 보수교육에는 김순례 제1부회장, 이상희 교육부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독려하고 면담하였다.

◎ 이사회회의 개최

2005년 7월 15일(금) 협회 사무실에서 2005년도 제2차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였다.

◎ 2005년도 노동부 연구용역 사업에 협회 참여

노동부는 2005년도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연구」를 위해 31개 과제로 연구용역을 제한하고 총 29억원을 예산 배정하였다. 이에 본 협회는 「유기용제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프로그램 및 사업장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와 5,3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약 체결하여 2005년 7월 29일~12월 16일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 한국전문간호사제도 정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및 전문가 Workshop 참석

2005년 8월 29~8월 30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은명 대강당 및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에머랄드홀에서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국제한인간호재단 주최 『한국전문간호사제도 정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및 전문가 Workshop』에 김영임 회장, 김순례 제1부회장, 김영희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참석

2005년 8월 30일 오후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머랄드룸에서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 김영임 회장, 김영희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2005년도 상반기 사업시행결과 보고 및 2005년도 상반기 결산보고를 하고, 안전토의로 임상간호사회 명칭 변경 관련 건, 인천 동구 치매센터 증축 허가 관련한 토지 구입 건, 2006~2007년 간호수첩 제작 관련 건, 간호사해외취업 관련 건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 한국산업간호학회 소식

### ◎ 2005년 제 3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산업안전보건대회 노동부장관상 수상

지난 7월 1일 코엑스에서 김양미 전 부회장(서울순천향대학교병원 수간호사)이 산재예방유공자로 선정되어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 산업안전공단 작업환경관리 혁신위원회 참석

지난 6월 22일, 7월 20일에 김희걸 회장이 참석하여 작업환경관리 개선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 ◎ 노동부 연구용역 사업

지난 7월 29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주제로 노동부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기간은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구비는 4,300만원이다.

### ◎ 이사회 개최

2005년 8월 8일(월) 강남 무스쿠스에서 200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 제14권 2호 학술지 게재논문 모집

산업간호학회지 제 14권 2호 발간을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는 출판이사인 제주대학교 김정희교수(snukjh@cheju.ac.kr)가 접수하고 있다.

## 노동계 소식

### ◎ 노동부, 상반기 재해율 0.37%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소 사업장이 재해의 다수를 차지해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최근 밝힌 2005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자수가 4만2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46명이 줄었으며 재해율도 0.37%로 전년동기 0.42%대비 0.05%p 감소했다.

아울러 사망자수도 1212명으로 전년동기 1393명보다 181명이 줄었고 사고 만인율도 1.12로 지난해 1.35와 비교, 0.23p가 감소했다.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1만7465명으로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6898명으로 17%를 차지해 그 다음 순위를 이었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광업에서만 재해율이 1.7% 가량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4662명의 산재재해자가 발생, 전체의 86.2%로 차지해 중소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줬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68.5%인 2만7574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666명(55%)에 달해 전체 사망의 절반을 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규모에서 재해자수, 재해율이 감소했고 재해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88명의 재해자 및 8.5%의 재해율이 감소했다.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주요내용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의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으로 정하고, 확정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을 100분의 60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 ◎ 9월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90% 적용

9월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요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감액은 하되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 산재보험도 찾아가는 서비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8월 8일부터 6개 공단 지역본부별로 산재보상업무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상업무가 행정사무 중심으로 이뤄져 의료·재활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관리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단의 보상업무 프로세스를 최초 요양부터 재활, 사회복지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 측은 9월까지 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전 지사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1인 전담제로 운영하는 보상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현장서비스·급여지급팀으로 구분·운영하고, 최초 발생시 사업주·근로자 방문 등 재해조사를 강화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승인이 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현장서비스팀을 보상업무 경력자·간호사·재활상담사(공단 상근자문의사도 참여)로 구성, 산재근로자를 직접 상담해 상병상태·치료기간 등에 따라 의료상담, 재활·직장복귀 지원 서비스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간호사 120명(현 69명), 재활상담사 37명(현 110명) 등 현장서비스 인력 25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 ◎ 노조전임자 상급단체 행사 중 부상,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 행사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8월 20일 전 국민택시연맹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가해 운동을 하던 중 사지마비 등의 상병을 얻은 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는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보다 재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노조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해 산별노조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했다 상해를 입었다”며 “이 행사는 노조원간의 친목도모뿐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원고는 노조 업무수행 중 상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1년 8월 민주택시연맹이 개최한 ‘해변수련학교’에 참가해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부상을 당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 한국노총, 노동상담 전화 1566-2020로 통합

한국노총은 17개 지역노동상담소 전화번호를 ‘1566-2020’로 통합해 새로 개통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역상담소가 지난 89년부터 주요 17개 지역에서 노조 운영 및 노사관계 등 노동, 생활조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각 상담소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혼선과 불편이 있어 8월 1일부터 통합번호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건 사람의 지역번호에 따라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소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17개 지역상담소는 지난해 모두 4만 2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보건계 소식

### ◎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예방대책 정책간담회 실시

8월 16일(화) 한국산업안전공단 소회의실에서 노동부 송영중 산업안전국장, 공단 기술이사, 산업보건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보건분야 안전인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 강성규 산업보건지원국장은 성공적인 예방 활동을 소개하였다. 공단의 연구결과를 통해 2002년에 석면 노출기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기준으로 강화되었다. 미국과 EU 전 국가는 석면사용을 중단하였고 일본은 2004년 10월부터 사용 중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 사용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사용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건축물 철거신청서 양식(건축법 시행규칙) 개정(☞건축물 철거 신청서에 석면 확인란 개설, ☞석면 함유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안전공단에서 기술지원) ▷장기적으로 백석면 등 모든 석면을 전면 사용 중단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석면 노출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악성성종피종 감시체계 강화, ☞건강관리수첩을 통한 이직 근로자 사후 건강관리 강화) ▷공단의 석면 분석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문의 : 032-5100-629)

### ◎ 화학물질에 의한 신경독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화학물질에 의한 신경독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대한산업의학회 공동 주관으로 9월 26일(월)~9월 29일(목)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본 심포지엄은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신경독성학 및 정신생리학 분과위원회 제9차 학술대회(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urobehavioral Methods and Effects i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로서, 신경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각국의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특히 미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한국의 노말렉산중독 사례가 발표되며,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용접공의 망간중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150~20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표논문 중 우수논문은 국제학술지 NeuroToxicology에 게재된다. (<http://home.kosha.net/~neurotox> ▷전화 032-5100-938 ▷전자우편 [neurotox@kosha.net](mailto:neurotox@kosha.net))

### ◎ PCBs 취급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

최근 PCBs의 피부접촉 및 흡입으로 피부질환, 간이상, 발기불능, 탈모, 구토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동 증상은 환경오염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공기흡입으로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또한 2002년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폐기물 재생업체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의 이상 발견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79년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사용 규제이전에 제작된 변압기내 PCBs 함유 절연유의 재활용으로 오염잔존이 예상되는 변압기 취급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032-5100-629)

### ◎ “고령화대비 은퇴연령 72~75세로 늦춰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퇴연령을 현재의 56~60세 수준에서 오는 2040년까지 72~75세 정도로 대폭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라는 공개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령화시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25세 이상을 취업 가능인구로 간주하고 이 중 노동시장은 퇴임구가 25%수준을 유지하려면 2005년 현재 은퇴연령이 56세가 되지만 오는 2020년에는 65세, 2030년에는 68세, 2040년에는 72세로 각각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2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은퇴인구가 20% 수준이 되는 은퇴연령은 2005년 현재 60세 정도이지만 2020년에는 65세, 2030년에는 70세, 2040년에는 75세 등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처럼 은퇴연령이 현실화되려면 노동시장 정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확립, 고령에 따른 일과 임금구조의 재조정,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제도들이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간호계 소식

###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첫 시행

'가정, 마취 등 2개 분야 414명 접수'

○ 우리나라에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시험이 시행된다. 올해에는 2005년도에 가정전문간호사와 마취전문간호사 등 두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간호사 가운데 414명(가정 407명, 마취 7명)이 접수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원장 김조자)에서 주관한다.

○ 시험은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각각 8월 13일(오전 8시 30분~11시 30분)과 8월 27일(오전 8시 30분~오후 5시)에 치러진다.

○ 마취전문간호사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8월 13일 (오전 8시 30분~11시 30분)과 8월 28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에 실시된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 장소는 연대 의과대학이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8월 18일(목) 있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9월 5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된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간호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abon.or.kr>)에 공고되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된다.

○한국간호평가원은 그동안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대비,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요소를 규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시험 기준과 문항을 개발했다.

○가정, 마취전문간호사 이외 8개 전문간호사(보건,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에 대한 자격시험은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개 분야 자격시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간호평가원은 전문간호사 업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문간호사제도는 간호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2000년 1월 보건, 정신, 가정, 마취 등 4개 분야별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또 2003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6개 분야가 새로 포함됐고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기관에서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돼 왔다.

### ◎ '간호사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 간호사 참여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7월 5일~7월 8일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대전 을지대학병원 등 5개 병원 간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병원별로 '간호사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해체, 이혼의 증가 등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또 아동학대예방 홍보물이 배부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차량용 스티커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과 병원별로 준비한 요구르트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가 2003년 보다 33% 증가한 3,891건으로 집계됐다.



○ 아동 학대라며 신고한 전화 건수는 한 해 만에 40% 늘어난 7천여 건에 달한다. 중복 학대 등을 제외하면 지난 한 해 실제로 학대를 당한 어린이 수는 모두 3,500 명에 이른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였으며, 특히 친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54%로 절반을 넘었다. 또 아동학대의 절반 가까운 46%는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아동 학대 가운데 아버지만 있는 가정이 33%, 어머니만 있는 가정이 13%를 차지했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자식을 내버려 두는 방임이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한 '중복 학대'는 39%에 이르렀다.

## 보건의료계 소식

### ◎ 매월 6일은 육아데이 여성가족부, 캠페인 전개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보육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정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육아데이는 공보육의 주체인 부모, 어린이집, 기업, 정부가 함께 보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육아데이 캠페인을 앞장서서 실천할 계획이다.

동 캠페인은 기업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정서퇴근을 배려하고, 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의 보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을 가지게 되며, 보육시설은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유기적 체계로 운영된다.

이는 공보육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에 못지않게 보육 당사자인 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특히 아버지들은 육아에 참여하거나 보육시설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 ◎ 혈액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2005년 8월 9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하여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하며,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현행의 신고 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등 국민건강위해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

기 위하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8월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고 밝히고,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약품유통관련 비리 및 식품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분야별로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적 적용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 위해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국민건강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임신·출산·육아 사이트 '아가사랑' 오픈

보건복지부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예비부부 및 임신부부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아가사랑' ([www.아가사랑.net/www.aga-love.org](http://www.아가사랑.net/www.aga-love.org))을 오픈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향후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적 정보체계를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오픈 후에도 정보 콘텐츠 개발과 SMS 알림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만 6세 미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적극 추진

정부는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고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아파서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중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환자부담금(건강보험적용 총 진료비의 약 20%)이 면제되게 된다. 식대나 1,2인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고려한다면 환자부담은 현재보다 약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정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 경향 심화로 인해 병원비 때문에 아동에 대해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큰 실정에서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책에는 연간 약 800억~1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게 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